

2024년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설계 VII 스튜디오 소개 Korea University Architecture Studio VII Introduction

Studio VII(1) Professors & Introduction



원정연: 고려대학교 부교수(adrp lab 연구실), Upenn 석사, 미국건축사(AIA), <https://www.adrp-lab.org/>
ChungYeon Won: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MArch(Upenn), Lincensed Architect(AIA)



이종걸: 연우테크놀로지 이사, 11thD (주)일레븐스디 대표, Columbia 석사, 11thd.com
Chongkul Yi: Yunwoo Techonologies Director, 11thd Co. CEO, MArch(Columbia University)

"Reinterpreting Arcology: Ethical Tectonics in Circular Architecture"

Today's architecture stands at a subtle intersection of environment, ethic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io aims to deeply reconsider the essence of architecture from tectonic perspective. Beyond being a medium of physical implementation, it explores how architecture can embody ecological and ethical design languages demanded by our times. Ca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serve as a medium reflecting humanity's ecological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values?

Arcology: At the core of our exploration lies the concept of Arcology, drawing inspiration from Paolo Soleri's seminal 1969 treatise, 'Arcology: The City in the Image of Man.' Here, students are invited to envision architecture as an organism within the urban fabric, symbiotically entwined with the principles of circularity, fostering sustainable urban ecosystems.

Our discourse will extend into the ethic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sign, critically assessing how our material choices, systemic designs, and spatial articulations resonate with our responsibility to the evolving urban milieu. This calls for a paradigm shift from conventional methodologies to a pursuit of solutions that are ethically resonant and aesthetically innovative.

Circularity: What does design based on the principles of Circularity, aimed at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entail? It focuses on architectural language that reflects the selection of ethical materials and systems, minimal resource use, and the potential for disassembly and reuse, aligning with the cradle-to-cradle philosophy. This approach necessitates a deep understanding of circular design tectonics as pivotal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practice.

Studio Outline

- **Themes and program:** As part of the graduate projects, students have the liberty to select their site and program.
- **Studio Approach:** Adopting a research-driven methodology, this studio requires participants to conduct thorough research and synthesize their selected themes. This preparatory work ensures a well-informed and contextually relevant for the subsequent design phase.
- **Potential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 What areas within urban landscapes offer the most potential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through architectural interventions?
 - What are the discrepancies in modern sustainable architectural practices, and which alternative approaches have the potential to catalyze a paradigm shift?
 - How does the concept of circularity challenge and potentially redefine the tectonic forms prevalent in modern architecture?

- What strategies can be employed to effectively incorporate Arcological principles into the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to bolster sustainability?

오늘날의 건축은 환경, 윤리, 기술적 혁신이 얹힌 미묘한 교차점에 서 있다. 본 스튜디오는 건축의 본질을 구축적 관점에서 심도 깊게 재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대의 속성을 물리적 형태로 전환하는 구축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디자인 언어를 건축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건축과 도시가 인류의 생태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rcology: 파올로 솔레리의 1969년 저작 "Arcology: The City in the Image of Man"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콜로지 개념은 기존의 도시와 건축이 지니는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하는 복합적인 생태계로서의 도시 공간을 제안한다. 본 스튜디오는 아콜로지의 개념을 현대적 도시 맥락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순환성 원칙을 내포하는 건축을 위한 영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서의 건축을 상상하고자 한다.

순환성: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지향하는 순환성 원칙에 근거하는 디자인은 무엇일까? 윤리적 재료와 시스템의 선택, 최소한의 자원, 해체와 재사용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건축적 언어에 집중한다. 'Cradle to Cradle'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철학을 구현하고 시대적 요구인 순환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스튜디오 개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졸업 프로젝트를 고려하여, 각 학생은 자신의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스튜디오 진행 방식:** 리서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본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은 선택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야 한다. 후속되는 디자인은 명확한 문제 인식, 대안적 접근과 시대 맥락적 연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 **리서치 질문 및 가설 예시:**
 - 건축적 개입을 통해 도시의 생태적 변환을 시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 현재 지속 가능한 건축들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대안적 접근이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것인가?
 - 순환성(Circularity) 개념이 기존의 보편화된 건축적 언어들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가?
 - Arcology의 원칙을 기존 도시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이 요구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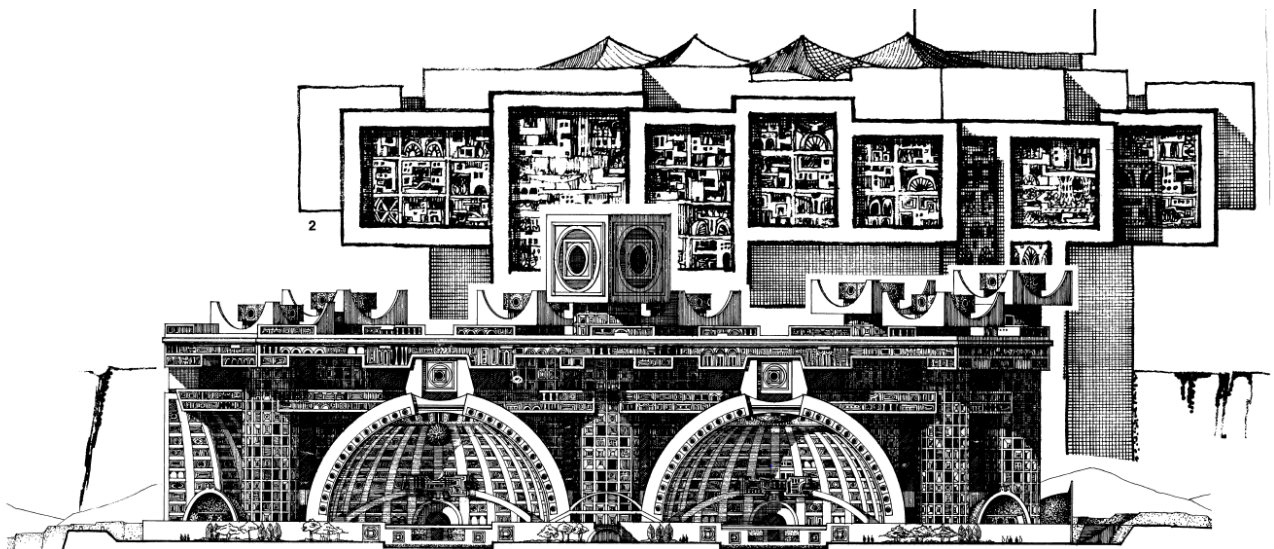


Image of Arcosanti, Arcology: the city in the image of man, 1969 Paolo Soleri

Studio VII(2) Professors & Introduction



이민화 Lee Minhwa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 주식회사 서울건축 대표이사 www.sacarch.co.kr
SAC International, Ltd. Architects-Consultants, President, Bachelor of Architecture(Korea University), Lincensed Architect(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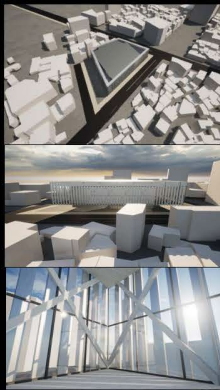
강우현 Kang Woohyun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 (주)아키후드 건축 대표 www.archihood.com
WooHyeon Kang: Archihood WxY, Bachelor of Architecture(Korea University), Lincensed Architect(KIRA)

STUDIO 02 2023

건축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건축은 발전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문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Technology를 추구한다. 과거의 건축은 서양적인 Trend 또는 요구, 문화의 규범, 그리고 기술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 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였으나, 현재는 인류가 직면한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건축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현대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이며 도전하여야 할 과제이다. 도시의 확산과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생태계를 훼손하여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이 된다. 새로운 도시의 개발은 또한 기존 도시의 슬럼화와 공동화를 야기한다.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는 가난해 그들로 두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된 도시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건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자체이다. 건축이 도시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 설계과정을 통하여 도시와 연계한 건축을 연구한다. 도시의 맥락에서의 신장된 대지를 분석하고, 엄지적인 미래를 예측한 뒤, 대지에 융합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와 함께 건축이 지니는 사회 문화적이고 도시환경적인 특성 및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제약을 풀기 위해 단계에서 진행되는 도시 건축요소들과 관계방향을 지닌다. 건축 환경이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을 건축 계획으로 두면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다.

PROF. MINHWA LEE 이민화
PROF. WOOHYUN KANG 강우현



Daehan Cinema Community Center
Sejoong park



Relieving Social Issue,
Shin-Sul Dong Residential Complex
Yoonjo Nam



Office Variety,
Sung-Soo Dong Office
Seunghwan Hwang



Interlude: Operatic Reconnection,
Sung-Soo Dong Opera House
Hongkoo Yeo



Green Triangle
Yeoung-Deungpo Urban Farm Complex
Hejun Min



Nodaeul Supply Cells
Nodaeul Island
Seyeon Kim



The Daily and Nondaily Promenade
4.16 Sewol-Ho Memorial and Culture
Center, Jehu
Suyi Jeong

Preface

건축은 그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건축은 발전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인문사회적인 요소를 감안한 프로그램에 더하여 높은 수준의 Technology를 요구한다. 과거의 건축은 사회적인 Trend 또는 요구, 법규와 규범, 그리고 기술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 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였으나, 현재는 인류가 직면한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건축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현대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이며 도전하여야 할 과제이다.

도시의 확산과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며, 기후 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된다. 새로운 도시의 개발은 또한 기존 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를 야기한다.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는 가급적 그대로 두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개발된 도시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건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그 자체이다. 건축이 도시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복합적인 용도의 건축물 설계과정을 통하여 도시와 연계된 건축을 연구한다. 도시적 맥락에서의 선정된 대지를 분석하고 입지적인 미래를 예측한 뒤, 대지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와 함께 건축이 지니는 사회 문화적이고 도시환경적인 특성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제안된 해결책을 통하여 설계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도시 건축 요소와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는다.

건축 환경이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을 건축 계획으로 투영함으로써, 학생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역성, 장소성 Regionality, Placeness

서울은 역사와 현재,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진 건축적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이다. 이 도시는 서울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탄생과 성장, 소멸을 반복한다. 다양한 지역과 장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는 건축에 대한 담대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스튜디오는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도시의 지역성과 장소성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건축이 구성하는 도시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이 도시의 지역과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각자의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통하여 투영함으로써 건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성찰을 프로젝트를 통하여 반영함으로써 건축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 스튜디오는 주제 및 대지 선정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각자 자유롭게 주제와 대지를 선정하되, 프로젝트 유형 또한 중저층의 건물로부터 초고층까지 다양한 유형의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설계7에서 진행한 컨셉과 디자인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Detailing and Technology를 요구하는 건축설계 8과의 연계를 고려한 설계 진행을 요한다. 이 전 과정을 통하여 건축적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학습능력과 함께 완성도 높은 건축적인 표현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Preface

Architecture is a mirror reflecting its era, constantly evolving alongside the changing times. This necessitates not only a high level of technology but also a program that considers humanistic and social factors. While past architecture was driven by social trends, demands, regulations, and the creative spark of architects, today's focus has shifted to developing new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This challenge stands as the most significant responsibility and defining feature of modern architecture.

The rampant expansion and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cities are posing a dire threat to our environment, disrupting ecosystems, accelerating climate change, and contributing to the "doughnut pattern" of urban sprawls with hollowed-out centers. To preserve precious undeveloped land, we must maximize the utilization of existing urban areas. Architecture, as a fundamental element and embodiment of cities,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urban environments and building relationships within them.

To explore this vital role, students delve into the study of architecture linked to cities through the design of complex-purpose buildings. This process involves analyzing the selected land within its urban context, predicting its future potential, and crafting a program tailored to its specific needs. Students further engage in identifying the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long with any architectural issues that may arise. Through their proposed solutions, students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urban architectural elements and design methodologies employed at each stage of the process.

By reflecting the way in which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responds to society into architectural planning, students propose creative and sustainable solutions that can flexibly adapt to the ever-changing demands of our world.

Regionality, Placeness

Seoul is a city with great architectural potential, where complexity and diversity, past and present, urban and nature coexist. It repeats birth, growth, and extinction like a living, breathing organism in the time and space of the city boundaries. Various regions and places are intricately intertwined. These complexities provide an opportunity for a bold challenge in architecture.

Our Studio seeks to explore the city constituted by architecture based on the theme of regionality and placeness in the city where the project is located. In addition, we seek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rchitecture by projecting the impact of architecture on urban regions and places through each student's project. On the other hand, we explore the sustainability of architecture by reflecting on the global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through the project.

Our studio respects student's maximum autonomy and diversity in the selection of topics and sites. Each student can select the topic and site freely, and the project type is also possible to perform a variety of types from mid-low-rise buildings to high-rise buildings. Based on the concept and design development process carried out in Design Studio 7,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design considering the connection with Design Studio 8, which requires detailing and technology. Through this entire process, we aim to develop high-fidelity architectural expression skills along with the learning ability to develop broad architectural ideas.

Studio VII(3) Professors & Introduction



홍근표 Hong Keunpyo

Ph.D of Architecture(Korea University), 한국건축사(KIRA), 이도 LAB 건축사사무소



윤자윤 Yoon Jayoon

M.A. Interior Design (Royal College of Art), 한국건축사(KIRA), 조병수건축연구소(Bcho Partners) 파트너

Seoulness 2050

What will disappear from the city? What will emerge in the city?



서울은 이질성의 도시이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도시가 빠르게 확장하고 변화하며, 현대에 와서 다양한 것들이 혼재하거나 이웃하여 '이질'의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없어지는 것들과 새로 생기는 것들의 매력적인 공존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혼재와 대체 몇 년 전까지 구두공방과 부자재가게가 늘어 서있던 성수동의 수제화 거리는 빠르게 침투한 상권으로, 현재 부자재가게 양옆으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는 양상이다. 도시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프로그램이 바뀌며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2021 년 여름, 국내의 물류기업과 에너지 기업은 점차 필요가 줄어들고 있는 주유소를 도심 물류서비스 거점으로 전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도시의 인프라를 담당하던 한 건물유형이 쇠퇴하면서 새로 생기는 유형으로 대체되는 과정의 시작이다.

진공_하지만 때로 너무 급격한 변화는 공존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지 못하여 진공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코로나 이후 쇼핑의 메카였던 동대문상가의 공실율이 점차 늘어나 현재는 10~40%에 달한다고 한다. 즉, 소비행태의 변화로 인해 상업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새로운 방식'의 공존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질성에 대한 마지막 변수_그리고 기후변화는 서울을 변화시킬 또다른 변수이다. 2050 년 지구의 기온이 1.5 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서울은 외부화 하였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시내부로 끌어들이 새로운 자연-인공환경의 공존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Seoulness(서울성) 2050_ 2050 년,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새로 생길 것인가? 사라지는 건물유형과 프로그램들은 무엇으로 대체되고, 미래의 서울은 결국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이질성의 도시, 공존의 도시인 서울의 2050 년을 그려보자.

도시 패브릭의 변화, 프로그램의 변화, 인간 행태의 변화, 자연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예측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Seoulness(서울성)'를 제안하여 보자. 본 스튜디오는 집요한 리서치, 깊이 있는 분석, 대담한 상상력을 모두 환영한다.

Studio VII(4) Professors & Introduction



권경은: 오피스경 소장, MIT 석사, 미국건축사(AIA), <http://okarchitecture.com/>
Kyoung Eun Kwon: Office Kyuhng, Principle, Master of Architecture (MIT), Lincensed Architect(AIA)

집단 기억의 도시 The City of Collective Memory*

본 스튜디오는 졸업 설계를 도시와 개인의 관계로 연결하여 (미래)건축가의 작업을 공공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2년간 다루었던 “전형과 변형”의 주제에서 확대된 인간의 개별 서사에 대한 도시적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시의 개별적 서사들과 집단 기억의 집합이다. 스튜디오의 과정에서 “집단 기억”의 화두로 도시를 읽는 목적은, 사회와 건축의 관계를 “도시와 인간”의 틀에서 고민하되 공식적인 역사와는 분리될 수 도 있는 “개인적 기억과 건축”에 좀 더 그 중심을 두고자 함이다. 본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은 도시와 그의 역사를 집단적 기억의 집합으로 읽고, 건축의 공공성이 개별성에 대한 존중과 구체화를 근간으로 이루어 지며 건축은 그 개별성에 응답하는 장치라는 전제로 작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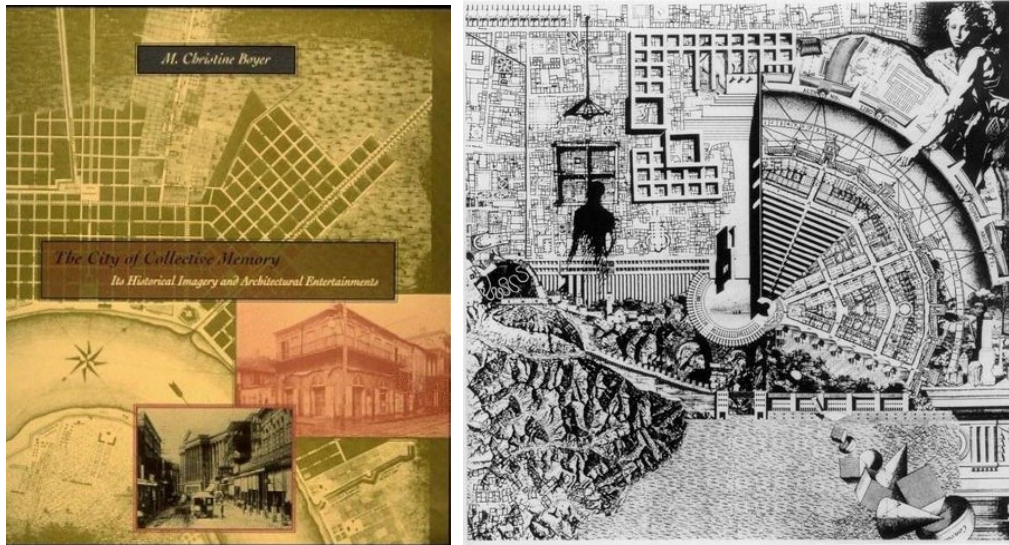
이러한 전제를 증명하기 위한 각 프로젝트는 도시 내 대지에서 개별 개인의 기억, 정서, 사건과 그들의 융합을 발생시키는 건축이 된다. 각 학생들은 정서적 메커니즘이 발현되는 대지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기억의 장치로서의 건축을 실험하고 제안하게 된다.

스튜디오의 과정은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 기억의 서술: 개별 주제와 대지, 프로그램의 선정
각 학생들은 본인 졸업 설계의 주제와 대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프로그램은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기억이 개입되는 모든 건축을 포함할 수 있다.
2. 틀의 제시: 주제와 대지의 분석을 통한 프로세스의 선정
이 과정에서 본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사고의 틀(예시)은 다음과 같다.
 - 일상의 풍경과 시적 순간 Ordinary Scenes / Poetic Moments
 - 논리적 구축과 감성의 기학 Logical Tectonics / Geometry of Sentiment
 - 공공의 역사와 개별 서술 Public History / Personal Narrative
 - 전형과 변형 Types / Transformation
3. 사건의 생성: 프로젝트의 건축적 발전
구체화의 과정은 공공성에 대응하는 형태의 구현과 이의 건축적 구축 방법을 발전시키되 건축이 발생시키는 정서적 반응 기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본 스튜디오는 졸업 설계가 각 학생의 관심사로부터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각자 건축적 정체성의 탄생을 이뤄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함께 건축이 특정 분야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고의 수단으로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스튜디오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스튜디오 타이틀은 The City of Collective Memory: Its Historical Imagery and Architectural Entertainments (M. Christine Boyer, MIT Press, 1994) 에서 차용함



The City of Collective Memory*

This studio aims for prospective architects to produce publically meaningful projects on architecture, connecting thes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human. Especially this year, we will focus on urban translation of human narratives, which were broadened after the past two-year experiments on “Types and Transformation”

The city is the collection of personal narratives and collective memories. The purpose of introducing “collective memory” into the design process is for students to think on individual memories apart from official histories, and to speculate architecture within the framework of urbanity and human. This studio urges students to work on the premise that the publicity should be shaped upon the respected individuality, and architecture should be the responsive apparatus to it, reading history as the assemblage of memories.

In order to prove this premise, each student should select a site and programs that generate memory, emotion and events, revealing the emotional mechanism among them, and experimenting architecture as the machine for remembering.

The following is the overall process of the studio.

1. Narration of memories: Selecting theme, site and program

Each student can select any program that can be related with memory.

2. Suggestion of framework: Selecting the process for analysis and synthesis

Examples of framework

- Ordinary Scenes / Poetic Moments
- Logical Tectonics / Geometry of Sentiment
- Public History / Personal Narrative
- Types / Transformation

3. Generation of events: Developing project architecturally

Specific processes can produce the concrete forms corresponding to publicity and tectonics, triggered by the emotional mechanism.

With their personal interest, students should reach a certain level beyond producing architectural objects throughout the semester, thinking the society within the frame of social and urban relationships. Ultimately, the studio aims for the students to initiate the architectural identities, finding the meaning of architecture as the sustainable tool for thinking.

*the title of the studio was adapted from *The City of Collective Memory: Its Historical Imagery and Architectural Entertainments* (M. Christine Boyer, MIT Press, 1994)

Studio VII(5) Professors & Introduction



박상욱 (Sangwook Park)

Master of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arktonic , www.arktonic.com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건축의 행위는 소통으로 부터 시작되고 주어진 환경과의 관계 맺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논리적 사고의 과정들을 건축교육으로 부터 배워왔고 개념의 명쾌함에 대해 논해왔다. 개념적 사유의 시작은 언어적 구축으로 부터 이루어지고 우리는 건축이라는 어휘를 통해 사유의 과정들을 시각화 한다. 글을 짓는다고 하고 집을 짓는다고 하고 한다. 신형철 작가는 지면 (紙面) 이 곧 지면 (地面) 이어서, 나는 거기에 글을 짓는다고 한다. 그는 글을 짓는것 사고의 과정이 곧 건축의 과정이 되기위해, 첫째 인식을 생산해낼것, 둘째 정확한 문장을 찾을 것, 셋째 공학적으로 배치할것으로 이야기 한다. 즉 그럴듯한 한편의 글의 자격을 부여하고 건축에 적합한 자재를 찾듯이 문장을 찾아내며, 필요한 단락의 개수를 계산하고 필요한 만큼의 문장을 배치하여 사유의 구조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변형생성 문법이론이 근본적인 언의 구조적 관계를 재해석하고 각 단어들이 구성되는 방식 즉 통사적 특성에서 관계성으로 부터 인식의 구성을 분석한 것은 대지의 해석 으로 부터 맥락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념적 공간으로 구축해내는 일련의 건축의 과정이 글을 짓는 일종의 사유의 과정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문장을 찾아낸다는 것은 건축적 사고에서도 있어야 할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해야하는 균형잡힌 구조적 배치를 구축하는 과정과도 같다.

본 스튜디오는 졸업설계로서 언어적 사고의 과정들을 개념적으로 명쾌하게 건축적 사유를 통해 구축하려고 한다. 각 학생들의 주제들을 건축적 어휘를 통해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구축해 보고자 한다.

The essence of architecture begins with communication and is establish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given environment. We have learned these logical processes through architectural education and discussed the clarity of concepts. The initiation of conceptual reasoning starts with linguistic construction, and we visualize the processes of thought through the vocabulary of architecture. 'To write' becomes 'to build a house' for author Hyungcheol Shin. He connects the surface (紙面) to the ground (地面) and says, 'I write there.' He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writing is akin to the process of architecture: first generating perception, then finding precise sentences, and finally arranging them structurally as in engineering. It's about bestowing credibility on a convincing piece of writing, just as one finds suitable materials for construction, discovers sentences, calculates the required number of paragraphs, and places sentences as needed to achieve a structural balance in reasoning.

Noam Chomsky's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reinterpreting the fundamental structural relationships of language and analyzing the construction of cognition from relational aspects in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each word, parallels th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 to grasp context and construct it into conceptual space—an architectural process similar to the process of writing, a kind of reasoning. Finding the right sentence parallels the balanced structural arrangement necessary in architectural thinking, requiring a fitting placement of elements.

This studio aspires to construct, through architectural reasoning, a conceptual and logical framework for linguistic thought in the graduation design project. It aims to explore students' topics conceptually and logically using the language of architecture.